

# 5·18 대하소설 '불어오는 바람' 전 9권 출간

## 불어오는 바람

최문경 | 문예바다 | 1권당 1만5000원



원로 소설가 최문경 (78) 작가가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대하소설 '불어오는 바람'을 펴냈다. 지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광주시민일보(시청시보)에 연재했던 이야기를 집대성한 것으로 장편화된 책으로 나오기 까지 30여년이 걸렸다. 이번 작품 발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을 기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번에 발표된 작품은 모두 9권으로 제1권 '장박골의 아침', 제2권 '신군부와 시민군 형제들', 제3권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제4권 '붉은 실, 흰실이 뒤섞인 인동꽃 수의 머리띠', 제5권 '나는 보았다. 군인이 등에 꿰고 있는 대검을', 제6권 '아내의 갈퀴손', 제7권 '우리는 외곽도로 경계, 조철 의형제', 제8권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제9권 '5·18이 없다면 6월 항쟁도 없다' 등이다.

대하소설 9권의 제목만으로도 그날의



지난 5월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의 모습. 뉴스시스

아픔과 비범함이 묻어났다. 소설가는 격동과 흑암의 시기를 증명하는 사료들을 수집하고 여기에 소설적 상상력과 허구를 조합하여 장대한 이야기 마당을 꾸려냈다. 공간적 배경은 보성군 문덕면의 주암호 수몰지구를 중심에 두었다. 시대적 배경은 5·18민주화운동의 발발에서부터 전두환 정부가 노태우 후보를 앞세워 직선제를 요구 받아들이기까지 그러한 연후에 군사정권이 하강곡선을 그리는 지점까지

의 시기를 무대로 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5·18로 인해 성고문, 구속, 암매장, 파혼 등을 직간접적으로 겪고 끝나지 않는 현재진행의 5·18이 지속된다. 김득수는 보성군 문덕면 장박골 출신으로 문덕면사무소 주사인 공무원이다. 그의 아내 득량댁의 동생 임규정은 5·18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죽었다. 그는 암매장 된지 8년 만에 발굴됐다. 김득수는 공직자이지만

이 모든 사건의 증인이다.

박기중은 언론인 출신으로 5·18 때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보성 초당골다원 녹차밭을 가꾸며 살고 있다. 이 녹차밭에서 일하는 인부 여성들이 대부분 5·18때 계엄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임규정은 5·18때 외곽도로 경계조의 철 의형제 팀장으로 무장시위대를 이끌었다. 김득수의 아내 득량댁의 삼대독자 동생이다. 광주에서 표구점을 운영하던 평범한 인물이었다. 그날의 비극으로 그는 암매장 됐으며 8년이 지난 뒤 발굴됐다.

최 작가는 5·18 당시 실제 옛 전남도청과 총장으로 인근에 있는 광산동 72번지에서 살았다. 직접 5·18을 겪은 세대다. 이때의 경험은 5·18 대하소설 집필의 중요한 자양분이 된다. 소설가는 더는 물어 들 수가 없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설을 그려냈다.

최 작가는 "그달 27일에는 계엄군들이 쓰야대는 총탄이 지붕 위를 날아다니며 우리집 지붕을 뚫었다"며 "당시 경상도 말을 하는 군인이 총으로 대문을 밀고 들어와 물을 달라고 했다. 집 마당에는 작두샘

이 있었다. 물 그릇을 집어든 나는 너무 놀라서 물 그릇을 떨어뜨렸는데, 그 군인이 다시 집어 내 손에 놓아주면서, '놀라지 마시오. 군인입니다'라고 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일반 병사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흘동안 총탄이 쏟아지는 전남도청 앞에 나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먹을 것을 전하고 더러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며 같이 분노하고 같이 울기도 했다"고 적었다.

그날의 기막힌 참상은 44년의 세월이 흐른 뒤 토설해 내듯 대하소설로 태어났다. '44년 세월을 견딘 저항과 통곡의 서사'란 제목으로 서평을 쓴 김종희 전 경희대 교수(문학평론가)는 "작가는 스스로의 체험적 인식과 소설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저간의 사정에 대해 매우 진실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은 단편, 장편, 대하소설을 막론하고 많다. 홍희담, 최윤, 임철우, 한강 등의 작품을 별반 어려움 없이 떠올릴 수 있다. 여기에 최문경이 하나의 획을 더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문학적 성과를 제시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학사적 진전이다"고 평가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인류의 오랜 질문에 치열하게 싸워온 시대의 철학자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철학 상식 사전  
마이클 무어 | 크레타 | 1만7800원



이 책에는 아득히 먼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까지의 수많은 철학자가 등장한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데카르트와 흄스, 롤스와 니체를 거쳐 마르크스, 그리고 현대의 토머스 네이글과 데이비드 차머스까지... 인식론에서 실존주의에 이르는 인류의 오랜 질문과 치열하게 싸워온 철학자들의 문제의식과 탐구의 역사를 살펴본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는 철학 개념 중 대표적인 50가지를 선별하여 소개한다. 50가지의 개념과 함께 여기에 등장하는 철학자들 역시 서양철학사를 대표하는 탁월한 선구자들이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등 고대 그리스의 유명 철학자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칸트와 흄, 로크의 사

상이나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은 어떤가? 익숙할 만큼 누차 들어온 이름이지만, 몇몇 떠오르는 짝막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그들이 어떤 철학적 개념을 내세우고 펼쳤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 이는 의외로 드물 것이다. 한편 중세와 근대를 거쳐 과학 철학, 언어철학, 심리철학 등 그 테두리마저 세분화되는 현대철학이 다루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어디까지 접해봤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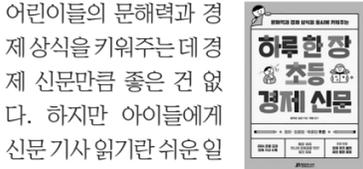
책은 전체적으로 초반부에서는 고대 철학을 다루고, 후반부에는 근세에서 현대까지의 철학을 다루는 연대기적 구성을 따른다. 다만 중반부에서는 선과 악, 신의 존재 등 더 광범위한 개념들을 다루었다. 50개의 챕터 안에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론, 키르케고르의 인생의 3단계, 뉴컴의 역설, 게이저 문제 등 철학사의 다양한 이론과 난제들도 만날 수 있다. 하나의 철학 사조에 손을 들어주거나 그 장단점을 판단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사상이 나타난 맥락과 목적, 고유한 시각과 그로 인한 논쟁 및 한계들까지도 훑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철학 사상이 서로 연결되거나 상대의 개념을 반박하는 등 다른 개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철학적 대답이며, 데카르트의 코기토 명제는 '회의주의 훑어보기' 챕터에 나오는 피론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철학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사상과 개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몇 개의 챕터에서 앞서 등장했던 철학자들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책은 여전히 철학이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입문자와 일반 독자들에게 기초적인 지식과 교양을 전달해 주는 교과서와 같은 기본서가 될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철학 사상과 특정한 철학 사조, 또는 철학적 질문들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이 책을 징검다리 삼아 각 철학자의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특히 관심 분야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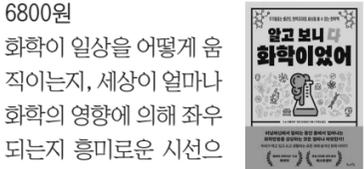
도선인 기자

하루 한 장 초등 경제 신문  
윤지선·김선 | 매경주니어 | 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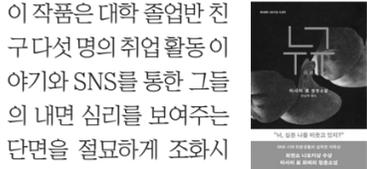
어린이들의 문해력과 경제 상식을 키워주는 데 경제 신문만큼 좋은 건 없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신문 기사 읽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탄생했다. 20년 이상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 두 분과 국내 최고의 경제교육 전문가들이 만든 '하루 한 장 초등 경제 신문'. 이 책은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에서 개최하는 '매경-퍼핀 주니어 경제금융 TEST'의 출제위원이기도 한 선생님들이 쉽게 풀어 쓴 100가지 최신·최고급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 경제 어휘, 기사의 주제를 파악하는 핵심 질문, 경제 이슈와 상식, 심화 지식 문제들이 담겨있다.

알고 보니 다 화학이었어  
누노 마올리데 외 1명 | 북라이프 | 1만6800원



화학이 일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상이 얼마나 화학의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지 흥미로운 시선으로 풀어냈다. 양파를 썰 때 눈물 흘리지 않는 방법 같은 일상적인 화학부터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화학까지 음식, 인체, 의약, 비료, 플라스틱, 가스, 기후의 7가지 키워드로 화학의 세계를 소개한다. 특히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상황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의 독특한 성질을 생생하고 유머러스하게 설명한다. 분자와 주기율표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잡고, 화학연구와 발명품에 얽힌 에피소드를 통해 화학에 숨겨진 재미를 알려준다.

누구  
아사이 료 | 은행나무 | 1만7000원



이 작품은 대학 졸업반 친구 다섯 명의 취업 활동 이야기와 SNS를 통한 그들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 단면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소설이다. '누구'의 주인공들은 다수의 이력서를 쓰고, 취업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소개서를 다듬고, 자기 PR을 위해 명함을 만들기도 한다. 작중 인물들과 동세대인 작가는 자신이 겪은 혹은 주변 친구들을 통해 느꼈을 법한 젊은 세대의 아픈 현실과 불안한 심리를 고도의 리얼리티를 살려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SNS 안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그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오늘날 젊은 이들의 모순적인 실상을 보여준다.

## 한국 근대 미술의 선구자 '이중섭'의 생

이중섭 편지와 그림들 1916~1956  
박재삼 옮김 | 가디언 | 1만7000원

“나는 한없이 사랑해야 할, 현재 무한히 사랑하는 남덕의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하늘이 점지해주셨소.”

아내를 향한 이중섭 화가 애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글이다.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이중섭 편지와 그림들'의 개정판이 출간됐다. 책에는 유화, 수채화, 스케치, 구아수화, 은종이 그림 등 이중섭의 대표작품 90여 점과 더불어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이중섭이 일본에 있던 아내 이남덕(마사코) 여사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이남덕 여사가 이중섭에게 보낸 편지, 이중섭이 결혼 전 마사코에게 띄운 그림엽서 등이 담겨있다.

제3자가 아닌 화가 이중섭이 직접 기술한 것을 고 박재삼 시인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다시 노래한 이 서간집에는 당시 이중섭의 궁핍했던 생활상과 아내와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리움, 예술에 대한 광적인 집착 등이 애처롭게 표현되어 있다.

무의미 시론으로 유명한 고 김춘수 시인의 이중섭 연작시 중 두 편, 고 이경성 미술평론가의 '이중섭 예술론', 고 구상 시인이 전하는 이중섭의 삶과 예술에 대한 글을 추가했다. 삶과 사

도선인 기자